

광주시, 타결 실패땀 대기업 투자유치·국가사업 추진 어려움

광주형 일자리 또다시 원점으로...후폭풍 부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면서 동시에 ‘고임금 저효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업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노사상생의 틀 내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이상(理想)’에서 출발한 이 모델은, 현대자동차가 투자희망서를 내고 광주시와 협상을 벌이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노사가 불신의 늪에서 마지막까지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는 ‘비현실적인 모델’이라는 자조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노동계의 상생-양보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리면서 벌써부터 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받던 광주, 사업 무산 시 국가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 어려움 겪을 듯=현직 대통령 참석이 예정된 행사가 6개월째 두 차례나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입지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6월 19일에 이어 12월 6일로 예상됐던 최종 협약서 조인식이 무산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와 광주시 모두 추가 협상 여지는 남겼고,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다. 이미 ‘뺨’을 모두 보인 상태에서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접점을 찾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여러차례의 타결 실패로 설사 합의의 보고 협약 체결까지 이룬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동종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해야하는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정해 노사민정이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가 복지를 지원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이 같은 상호 불신 속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市 무너진 신뢰 복원 힘들고 지역 노동계와 접점 찾기도 어려워 3000억 예산 언제 편성될지 불투명 빛그린산단 활성화에도 차질 우려

광주시가 현대차의 투자 유치에 실패한다면 향후 다른 대기업의 투자나 정부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000억 광주형 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되나=광주시는 일단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 2019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줄기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 201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투자협약만 체결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공동복지프로그램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에 쓰이는 만큼 2020년 예산에 반영되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2019년 국회 예산 처리시기를 넘어서 현대차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 여당이 약속한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복·임대주택 건설 ▲진입도로 개설 ▲노사공동 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로, 전체 사업비 2912억원 중 90%가량이 국비다. 관련 정부 부처와 공기업만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이고, 시 관련 실·국도 6~7곳에 이른다.

5개 사업 모두 소위 ‘패키지 예산’으로 묶여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한꺼번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않은 않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없는 빛그린 산단 악재=광



파업으로 일찍 퇴근하는 울산 현대차 노동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께 일손을 놓고 명춘정문을 통해 나오

고 있다.

주시와 현대차가 합작투자한 광주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국가산단은 전국 각지에서 관심을 가졌다.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의 투자 유치로 부품 업체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쇄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협약 체결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빛그린 산단도 악재를 만났다.

빛그린 산단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539㎡에 총사업비 6059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LH가 조성중인 국가산단이다. 2019년 12월 준공목표인 1단계는 264만4000㎡에 달한다. 공장 용지와 지원시설, 주거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구성됐다. 완성차 공장을 비롯해 광산

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등이 주된 유치 대상이다.

특히,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첫번째로 적용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현대차 측은 이미 빛그린산단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진출입로 위치와 인프라 구축 현황, 입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산단 진입도로(광주 방면)의 경우 총사업비 1016억원(전액 국비) 중 올해 19억원이 확보됐고, 내년에도 81억원, 향후 91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현대차 투자가 최종 타결될 경우

더 없는 호재가 될 수 있었으나 협상이 꼬이면서 산단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부품업체 입주에도 악재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건설링 지원사업’으로 혁신산단 운영모델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워크인연 구조의 의뢰로 진 리서치가 지난 8월13~31일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지만, 응답업체의 30%는 ‘완성차 공장이 입주한다면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50%...9주 하락세 끝내고 반등

리얼미터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8%, 한국당 2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9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소폭 반등해 50%선을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50.0%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6.1%포인트)는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청권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30대와 2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 주부와 학생, 자영업,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국정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호남, 40대, 남성, 노동직과 사무직,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정지지도의 반등세는 지지층이 큰 폭으로 이탈한 데 대한 자연적 조정(회귀) 효과와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가 확대되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

등 야당의 각종 공세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지난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전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38.4%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0%포인트 떨어진 24.4%로 5주간 지속했던 오름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7.6%,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오른 6.8%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은 서울 답방 소식, 아직 북에서 안왔다”

윤영찬 靑 국민소통수석

청와대는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아직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 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세종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쪽도 아직은 답변드릴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계획) 1, 플랜 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도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 기간인 지난 1일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연내 서울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북측에서 연락이 온 이후에야 구체적인 답방 시기가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본 투시도는 고가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가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 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하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